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헌법’

전북교육청, 헌법교육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제작… 도내 학교에 보급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서 헌법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시민·인성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헌법교육 자료 개발을 진행, 11월 초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분, 교사용 자료는 △교수·학습과정

안 △수업 PPT △시나리오 3종, 학생용은 학습지(활동지) 1종으로 제작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헌법교육도 병행한다.
국내 유일의 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12월까지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인권과 법’을

주제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은 ‘기본권과 법’을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헌법교육 학습자료는 단순히 헌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하고 있다”며 “삶과 연결된 실천적 교육, 체험형 활동 중심의 살아있는 헌법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와 B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대리 고발

유정기 권한대행, 공무집행 방해죄·무고죄·명예훼손죄로 학부모 2명 고발
지속적이고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담임교사·학생 피해 심각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와 B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A씨와 B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경영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전주M초등학교, 전북교육지원센터 등에 5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또 수업 중 교실 무단 침입, 언론과 SNS 등에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

다”면서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학부모 A, B의 교권침해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공무·업무 방해, *목적의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 등의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
심의 결과, 가해 학부모 A와 B에 대해 각각 심리치료 15시간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 및 조연,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학부모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결정통지서 수령을 거부

했다고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와 B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교권침해라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전북교육청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우주 전임의 국제치과연구학회 학술상

전북대학교 김우주 전임의(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가 치주조직 재생 연구 성과로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 전임의는 최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제44차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KADR) Hatton Competition에서 ‘잇몸 조직 수복용 접착성 생체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Hatton Award와 (재)대한치주연구회 우수학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 연구는 전북대 치주과 윤정호 교수 연구팀이 포함공과대학교, (주)바이오브리스와 공동으로 수행, 구강 연조직 및 치주조직 재생을 목표로 진행했다.
연구팀은 탈세포화 점막조직 세포의 기질을 기반으로 한 접착성 수복재와 콜라겐 매트릭스를 치은 결손부에 국소 이식해 실제 조직 재생 효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구강 내 스캐닝과 조직 계측 분석에서 이식재 고정성·접착력·생착률이 크게 향상됐고, 각화층은 재생도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막조직 세포외기질 기반의 접착성 생체소재가 향후 치주조직 재생 치료제 개발을 위한 유망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정현수 석사과정생 광해공업공단 공모전 수상

전북대학교 정현수 석사과정생(자원·에너지공학과 습식재련연구실, 지도교수 안준모)이 ‘2025년 Mine-tech 페스타 공모전’에서 동상(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이번 공모전에서 ‘메탄술폰산 기반 친환경 침출액에서 공추출(Co-extraction) 공정을 이용한 Ni, Co, Mn 회수 및 공정 최적화’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메탄술폰산은 친환경 유기산으로, 기존 침출제 대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침출제를 활용해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화정초,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전주화정초등학교(교장 김화자)는 1일 정문 앞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덕진구녹색어머니회(회장 이보라), 예곡누리 교육공동체(대표 임선영), 화정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송현주), 화정초등학교 학생회(회장 양건후), 전주시모범안전자연합회, 덕진경찰서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해 신호 준수, 정지선 준수, 무단횡단 방지, 학교 앞 주정차 금지, 도보등고 권고 등을 적극 홍보했다. /장은성 기자



‘제20회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품새를 선보이고 있다.

절도 있는 품새·타격감 좋은 격파 그날 태권도대회 열기는 뜨거웠다

전주비전대총장배 태권도대회 성황리
총 1200여명 참가 ‘역대 최대 규모’

‘제20회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초·중·고교 학생은 물론 일반부와 실버부까지 함께 참여하는 종합 태권도대회로, 1,200여명이 참가하며 도내 태권도 대회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격파 종목은 선수들의 기량과 창의성을 한층 끌어올리며 관중과 지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풍성한 후원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기관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500여만 원이 모금됐다.
우병훈 총장은 “이 대회는 태권

도의 저변 확대와 미래 인재 육성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꿈나무들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권도체육과과장 김순정 교수는 “겨루기, 품새, 격파, 실버부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회는 전북에서 유일하다”며 “20년간 이어온 전통 속에서 선수로 참가했던 이들이 지도자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회를 기획한 고봉수 교수는 “참가자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열정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전북 태권도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202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326명 선발

전북교육청, 13~17일 온라인교직원 채용시스템 통해 원서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공립학교 선발인원은 △중등학교교사 282명(장애 27명 포함) △보전교사 11명(장애 1명 포함) △영양교사 10명(장애 1명 포함) △사서교사 3명 △전문상담교사 9명(장애 1명 포함) △특수중등교사 11명(장애 1명 포함) 등 총 326명(장애 31명 포함)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중등학교교사는 2명 증가했지만, 보건교사 21명, 영양교사 4명, 사서교사 3명, 전문상담교사 12명, 특수중등교사 8명 등이 줄어 총

46명 감소했다.
시립학교는 전년도보다 1개 법인, 15명이 증가한 50개 법인에서 222명을 위탁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3~17일 5일간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차제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올해 임용시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응시자들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접수 절차와 시험 일정,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쌀이랑 놀자 & 송편 만들기’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추석 맞아 지역 어르신과 송편 만들기 체험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쌀이랑 놀자 & 송편 만들기’를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사회복지 등록 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역 어르신들은 직접 송편을 빚고 속을 채워보는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손을 섬세하게 채우는 과정을 통해 소근육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차경희 센터장(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은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건강한 일상 활동까지 병행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명절의 따뜻한 정서를 함께 나누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채롭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주



시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어린이 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대상 위생·영양 관리 지원 △영양 교육 및 맞춤형 간식제공 제공 △안전한 식재료 사용법 안내 △식문화 계승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식품·영양·조리 분야의 학문적 역량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발전지원재단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장학금

전주교육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이사장 박병춘)이 1일 총장실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7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이번 장학금이 학업 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훌륭한 교사가 돼 학교와 사회에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법학 분야 학술·교육 연구 협력 ‘맞손’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베트남 후에대 법학대학과 협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영선)은 지난 9월 30일 5층 회의실에서 베트남 후에대학교 법학대학과 학술 및 교육 연구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전북대 정영선 법학전문대학원장과 후에대학 응우옌 두이 포엡 법학대학 부학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후에대학교는 베트남 국립 거점대학으로,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아시아 대학 평가 순위 348위에 오른 대학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법학박사(JD)·법학석사(LLM)·박사(PhD) 과정을 포함한 대학원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공동 학술대회·심포지엄·전문가 교육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교수·학생·연구원 교류, 방문 교환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해 대학



간 역량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정영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학 교육과 연구에서 양교가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글로벌 법학 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응우옌 두이 포엡 후에대학 법학대학 부학장은 “전북대와의 협력은 양국 법학 연구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교수와 학생, 연구자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